

오피니언 리더

정성천
(작)한국영재교육발전연구소
광산교회장로



신(술)에서 호랑이를 만난 사람
백두산처럼 크고 험준한 신이나 뾰족하게
우거진 숲에 호랑이가 산다.

사람들은 생계, 탈출, 구경 등 다양한 이유
로 숲에 간다. 일반적으로 사람은 숲에서 호랑
이와 만나지 않기를 바라지만, 포수는 호랑이
를 만나고 싶어 한다.

신에 들어간 사람이 호랑이가 살고 있다는
것을 알아도, 사실, 호랑이가 그 시각 어디에
있을지는 알 수 없다. 호랑이 또한 사람이 언
제 어디로 올지 모른다. 그러나, 사람이 숲에
가면, 봄은 오는 아니면 내일, 그것도 아니면
그 다음 날이라도 만나게 되어있다.

호랑이는 자신이 사는 영역을 정해놓고 지
키기 때문에 한곳에 모여 살지 않고 여기저기
흩어져 산다. 이렇기에 숲에 들어가면, 숲에
간 첫날 호랑이를 만날 수 도 있고, 평생 다려
도 안 만날 수도 있다. 그래서 그런지 신에 가
서 호랑이를 만난 사람에게 재수가 없는 사람
이라고들 한다.

호랑이가 사는 숲

호랑이를 만난 사람의 운

배고픈 호랑이는 먹이를 찾고, 배부른 호랑
이는 먹이에 별 관심이 없다. 새끼를 낳아 기
르고 있는 암컷호랑이는 새끼로 인해 경계가
살려진다.

사람은 호랑이가 밥을 언제 먹을 지, 언제
먹었는지, 또한, 새끼를 낳았는지 안 낳았는지
들을 알지 못한다.

숲에 간 사람은 새끼를 기르고 있는 배고픈
암컷 호랑이를 만날 수 있고, 배부른 수컷호랑
이를 만날 수도 있다. 호랑이 또한, 포수를 만
날지, 약초꾼을 만날지 알지 못한다. 사람이
호랑이가 사는 숲에 갔다면, 어떤 순간에, 각
자의 조건을 가지고 물을 만나게 되어 있다.
왜? 운이 없었을까? 아니다. 운과는 상관이 없
다. 단지, 사람이 숲에 갔었기! 호랑이는 숲
에 살고, 사람은 숲에 들어갔기 때문이다. 사
람들은 "하필이면"이라는 말로 "재수 없는 사
람"이라는 말을 대신한다. 그렇지만 이는 "인
타감다"는 말이 "운이 없다"는 말은 아니다.

바다에서 호랑이를 만난 사람

바다는 방파제처럼 진전할 수도 있지만, 때
에 따라 크고 작은 파도가 있다. 사람이 바다
에 가면, 어쩌다 큰 파도를 만난다. 바다에 나
가 큰 파도를 만나 고초를 겪은 사람에게 재수
가 없는 사람이라고 한다. 사람이 바다에 가
서, 설사 더 큰 파도를 만났다고 해도, 이는 재수
없는 일이 아니라 어쩌다 있을 수 있는 일이

다.
만일, 어떤 사람이 바다에 나갔는데, 바다에
서 호랑이를 만났다면, 이 사람은 필경 죽기로
예정된 정할 재수 없는 사람이다.

사람이 만든 숲

사람은 살면서 혼자서는, 집단을 이루어서
자신들의 움직인 숲과 넓은 바다를 만든다.
사람이 만든 숲에도 무서운 호랑이가 살고, 바
다에도 거대한 파도가 있다. 사람들은 사람이
살면서 만들어놓은 숲에 호랑이가 있고, 바다
에는 파도가 있다는 것을 알지만, 살면서 언제
어디에서 이들을 만날지는 알지 못한다. 오늘
은 호랑이, 내일은 큰 파도를 만날 수도 있는
반면에 이들을 평생에 한 번도 만나지 않을 수
도 있다.

사람이 만든 숲을 걷는 조건

호랑이가 자주 출몰한 숲은 사람이 피한다.
그러나 이 정보가 없는 사람이 그 숲에 갔다면
당연히 호랑이를 만나게 된다. 재수가 없어서
가 아니라 정보가 없어서다.

사람이 만든 숲의 숲이나 삶의 바다에는 정
보가 있다. 이 정보를 잘 활용한 사람은 호랑
이와 파도를 피할 수 있다. 그러나 내가 만든
숲과 바다에 대한 정보는 잘 알고 있지만, 타
인이 만든 정보는 알기 어려워서, 오늘 걷는 인
생길에서, 어떤 호랑이나 파도를 만날지 알 수
가 없다. 그러나, 자신이 걷는 길에서 만날 가
능성이 있는 호랑이나 큰 파도에 대한 정보를
파악하고, 혹시 알지 못한 요소가 있을 수 있
음을 인지하여, 조심히 살피면서 걷는 노력이
필요하다.

사람은 사람들이 만든 숲이나 바다를 누비며
살아가기에 누구나, 어떤 이나 모두 서로 다른
호랑이와 파도를 만난다. 재수가 없어서 호랑
이나 큰 파도라고 여겨지는 사람을 만나는 것
이 아니다. 일상의 삶에서 그냥 만나게 된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재수가 없다"는 말을
자주 사용한다면 자신에게나 타인에게 별 도
움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 무속에 의지하도록 하는 가지
관을 심어줄 수도 있다. 삶의 숲이나 바다에서
걷는 길이 두려운 이유는 호랑이나 파도가 있
음을 알기 때문이다. 많은 사람들이 이를 피하
기 위해 "굿"을 선택한다. 성도는 '은'보다는
자신이 가는 길에 대한 정보를 파악하는 것이
우선이다. '재수'를 언급하다보면 '하나님의
섭리'를 '재수'로 바꿀 가능성이 있다.

외무부의 원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건강칼럼

달고나와 달고나 커피(Dalgona coffee) 이야기

지금의 젊은 세대들은 경험할 수 없었지만, 60년대부터 길
거리 노점상에서 군것질하는 대표적인 것으로 달고나 (뽑기, 때
기로 불리기도 함)가 있었다. 달고나는 당시 길거리에서 팔던
대표적인 불량식품의 대명사로 불려지기도 하였다. 작은 국자에
설탕과 베이킹 소다(중조(重曹); 탄산수소나트륨)를 섞은 후 연
탄불에서 가열하여 만들었다. 먼저 설탕을 가열하면서 저어주면
시럽처럼 끈적 되고 여기에 베이킹 소다를 가하면 이산화탄소를
방출하면서 부풀어 오르게 된다. 이것을 모양대로 찍어 눌러서
원하는 형태를 만들 수 있었다. 달고나를 만드는 과정은 설탕의
화학적 결빙(browning)현상이다. 설탕이 고온에서 분해, 탈수, 산
화를 거쳐 중합반응이 일어나는 카라멜화 반응이다. 옛날 먹을
것이 제대로 없던 시절, 어린아이들에게 달고나는 학교 앞 가판
대에서 인기있는 대표적인 간식이자 군것질이었다. 어른들의 복
고풍의 인기에 힘입어 젊은 세대를 대상으로 추억의 달고나 만
들기 세트가 판매되기도 하는데, 특히 2021년 <오징어 게임>에서
'설탕 뽑기'로 소개되어 큰 관심을 끌었다.

한편, '달고나 커피'가 2020년 펜데믹 코로나 19 시절 국내에
서 우연히 소개되어 유행하였다. 당류로 '달고나'를 커피에 넣
는 것으로 보이지만, 처음에는 '달고나'와 아무런 관계가 없었
다. 본래 '달고나 커피'의 제법은 인스턴트 원두커피 가루, 설탕,
뜨거운 물을 1 : 1 : 1 비율로 넣고 수백 번 이상 강력하게
저어서 만든다. 그러면 '달고나'와 비슷한 크림이 만들어지는데,
거기에 물이나 우유, 얼음을 주사로 넣어 만드는 커피 음료이다.
인스턴트 커피 가루와 설탕과 함께 넣어 만들 때, 커피 가루에
들어있는 탄닌질이 컷는 과정을 통하여 변형되어 서로 엉기면서
'달고나' 같은 크림이 만들어진다. 믹스커피를 원료로 하면 만
들어지지 않고, 원두커피(에스프레소/ 드립)를 사용해도 탄닌질
의 양이 적어서 '달고나' 같은 크림이 생기지 않는다.

우리나라에서 새롭게 만들어져 기원이 된 '달고나 커피'는 영
어로 Dalgona coffee라는 용어로 해외에까지 알려져 있다. 미지

이탈리아 카푸치노 커피처럼 한국 커피의
일종으로 소개된다. 처음에는 '달고나'와
무관한 '달고나' 커피를 만들었지만, 나중
에는 일반 커피나 라떼에 당류대신 '달고
나' 조각을 얹어서 만드는 진짜 '달고나
커피'로 발전하였다. 국내 커피 전문점에
서도 '달고나 커피'는 하나의 신메뉴가 되
었다.

'달고나 커피' 원조가 한국인 것처럼, 참
고로 '믹스 커피 (커피믹스)' 역시 한국에서 최초 개발된 제품
으로 외국인들에게도 인기가 있다 (북한에서는 두르는 것이 아니고
보통으로 사용할 정도라 한다). '믹스 커피'는 인스턴트 커피 시
장을 상징하는 제품이며, 라틴보다 매출액이 큰 상품으로 한국
을 대표하는 생활발달품 5위에 선정되기도 하였다. '믹스 커피'
는 인스턴트 커피(15%)와 설탕(50%), 프림(약 35%)의 용량비
율로 한 봉지에 담아 넣은 커피 상품이다. 달달한 설탕 그리고
우유를 대신하는 프림은 건강에 문제를 줄 수 있다. 단맛을 위
해 설탕을 전체 무게의 50% 이상을 사용하고 (한 봉지당 설탕
약 6g), 프림은 함유를 원료로 포화지방산인 식물성 경화유이기
때문에, 매일 습관적으로 몇 잔씩 마시는 것은 건강을 위해 조
심해야 한다.



이원재 교수

- 서울대 KAIST 졸업
- KIST 연구원으로 근무
- 미국 일리노이 주립대학(UIC) 박사학위 취득
- 동 대학에서 박사후 연구원
- LG화학기술연구소 연구원 근무
- (현) 조선대학교 약학대학 명예교수
- 약학대학 학장과 임상약학대학장 역임

선교칼럼 106



장찬익 선교사
아일랜드선교회 대표
광주중앙교회 협동목사
저서, 이슬람선교의 돌파구

지난호에 이어서

1단계. 번역기를 통해 현지
인과 대화를 나누어 봅시다.

우리가 비행기를 타고 집을
나르고 K 판을 하고 위생대신
을 하고 여러 가지 행사를 한
다음 개인적으로 사람을 만나
서 우리의 핸드폰에 있는 번역

기를 통해 현지인과 교제 의 시
간을 갖는 것입니다. 핸드폰
안에 번역기 어플을 미리 다운
로드 받은 다음 언제든지 어플
을 이용해서 현지인과 대화를
나눌 수 있도록 번역기 사용훈
련을 해봅시다.

2단계. 대화를 통해 현지인
의 마음을 들어 봅시다.

우리가 만난 사람이 어디에
살고 공연연장에 어떻게 알고
왔는지 나누어 봅시다. 혹시

재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3단계. 현지인의 영적 상태
를 분별하여 봅시다.

나와 대화를 나누는 사람의
마음의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
를 파악하고 분별해서 고민해
결할 것인지 아니면 나의
간증을 할 것인지 아니면 복음
까지 전해도 되는지를 살펴 보
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 선교학
교 시간에 영적인 상태를 분별
하는 훈련을 해야하고 또 나의

년이 되었는데 그 동안 단기선
교 모습이 변화없이 아날로그
선교로 꼭 갖고 어떤 변화도
진전도 발전도 없이 진행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분
제의 원인이 우리가 현지어를
할 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
런데 인공지능이 개발되면서
동시통역의 번역기가 출시되
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한국인
들은 핸드폰을 가지고 있어서
이 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

AI 단기선교로 가자-2

다. 이제는 현대문명을 이용해
서 우리의 단기선교를 디지털
인공지능 선교로 더 수준 높은
상태에서 시작하여 봅시다. 우
리가 느끼고 준비한 하나님의
사랑을 불쌍함으로 전하여
봅시다. 이 은혜가 여러분의
단기선교 사역현장에서 점도
의 열매로 나타나기를 축복하
고 기도합니다.

우리의 단기선교 역사가 30

외무부의 원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신학 신입(편입)생 모집(주·야간)

시대를 선도하는 보수신학의 전당 062)266-0153 <http://gsecc.or.kr>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기원
합니다.
본인은 대한예수교장로회 합
동개혁총회 총회장 정서영 목
사입니다. 합동개혁 총회신학
은 청교도 개혁 신학의 요람
으로 사명자들에게 철저한 보수적 신앙체제로
교육하여 확실하게 자신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
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본인이 사명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여러가지 여건 등으로 망설이고 있습니까? 언제
든지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직하고 성실하게
상담에 응하겠습니다. 아울러 본 총회 신학은
년중 계속 수업을 실시하므로 언제든지 입학
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늘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총회장 정서영 목사



최고의 교수진
신학과 목회연결

모집안내

신학과 목회를 연결하는 프로그램 운영

광주총신 특별사항

과정별	모집학과	모집정원	응시자격
신학부 (졸업후 전도사 사역)	신학과(주,야)	00명	남·여 세례받은 자
	목회학과(주,야)	00명	남·여 세례받은 자 평신도, 장로, 사명자 특별전형
신학연구원 (졸업후 목사 안수)	주·야간반	00명	신학부 졸업자 및 동등학력 소지자 모든 수업은 광주총신에서 하며 졸업 등 모든 학적관리는 본교인 서울 남현동 총신에서 주관함.
학술원	목회학과	00명	본 신학연구원 졸업자

원서교부 및 접수

1. 원서교부 : 총회신학 광주캠퍼스
2. 원서접수 : 수시접수(062-266-0153)
3. 전형방법 : 서류전형, 면접(전형료 없음)

교수님을 모십니다

- 지원자격 : 전공분야 및
박사학위 소지자
- 모집인원 : 0명



시대를 선도하는 보수신학의 전당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신학
광주총회신학 연구원장 : 임강원 목사

토요반 수시등록 접수중

광주광역시 각화동 476-1번지 062)266-0153

총회신학은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에서 교단 내
지도자양성을 위해 인준한신학교육기관입니다.